

북스

역사의 빛과 그림자를 만든 50권의 책

어린이 책꽂이



▲책은 먹는 게 아니에요=아기 곰, 개, 고양이, 원숭이 등 다양한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자기책을 소중히 아끼는 법에 대해 알려준다.



▲꼬마 저승사자 마꼬 2-위기의 아이들을 구하라! =귀신을 무서워하는 꼬마 저승사자 마꼬가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펼치는 한국판 판타지 동화로, 어렸을 때 상상하는 저승사자나 귀신이 때로는 이수룩하게, 때로는 귀엽게 그려졌다.



▲오메 할머니=‘마해송 문학상’을 수상한 오메씨의 가족애를 주제로 한 동화. 전라도 화순에서 올라온 오메 할머니가 아들 내외 집에서 머물면서 손녀 언지와 친해지는 과정을 그렸다.



▲천방지축 안젤라 수녀님=광주 금강초등학교 김희숙 선생님이 쓴 동화다. 안젤라 수녀가 견습 수녀생에서 정식 수녀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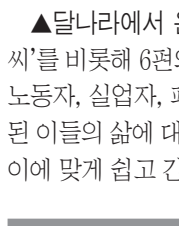
▲아빠는 너를 사랑해=바쁜 현대생활 속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가족관계에서 아빠와 아기의 거리를 좁히고 사랑을 자극하는 그림책이다.



▲볼수록 만만해 축구=지금까지 축구를 대강 보고 말았던 어린이들에게 축구 기초 이론을 간단하게 알아주기 위해 고안된 책이다.



▲에니의 끝까지 않은 축제=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세상을 큰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 생생하게 들려준다.



▲달나라에서 온 아저씨=작가 김일광씨의 '달나라에서 온 아저씨'를 비롯해 6편의 단편 동화를 묶은 동화집이다.

책 VS 역사

볼프강 헤를레스·클라우스 루디거 마이 지음



책은 시대를 보는 창이다. 책 속에는 인류의 사고의 흐름이 보이고, 사람들의 욕망도 읽힌다.

독일의 저널리스트 볼프강 헤를레스와 클라우스 루디거 마이가 함께 쓴 '책 VS 역사'는 인류 역사의 '빛과 그림자'를 만든 50권의 책을 소개하고 그 책들이 영향을 준 역사, 문화, 정치 등 다양한 면면까지 살펴본 책이다.

저자들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눠 각 시대별로 개괄을 쓴 후 각 시대의 대표작들을 소개하고 있다. 각각의 책에 대한 짧은 그리 길지 않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눈길을 끈다.

책의 내용과 각 책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들을 별도의 박스로 구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억과 기록의 역사가 시작된 고대 시대의 첫 페이지를 여는 책은 고대 이집트인이 만든 최초의 서적 '사자의 서'다.

인간이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하지만 또 궁금해 하는 사후세계로의 여행 안내서인 '사자의 서'는 영원한 삶을 위한 금언이기도 하다. 또 '구약성서', '신약성서', '코란' 등 종교 서적 역시 목록에 포함됐다.

구텐베르크의 등장으로 활자술이 발전하면서 근대 시대에는 수많은 서적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새로운 인간상을 만들려고 했던 세계의 개혁자들에게 자유분을 공급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현대적인 사상과 자연과학을 탄생시킨 혁명의 원동력이자 한 시대를 무너뜨릴 정도로 강력한 파장을 일으킨 코페르니쿠스의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사람들을 사로잡은 세익스피어의 로맨스 '로미오와 줄리엣'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이 목록에 포함됐다.

19세기를 지나 현대로 들어서면서 만날 수 있는 책은 우리에게 친숙한 것들이 많다.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기본 강령으로 자리잡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심리분석을 통해 예술·철학·사회학·문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서방 세계에서 이슬람 테러 공격이 일어날 때마다 거들 공격적인 토론의 핵심부에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등이 대표적이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말팔랑이 삐삐'는 여성과 아동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점에서 50권의 책에 뽑혔다.

또 뛰어난 상상력과 행운 그리고 마케팅 3박자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전 세계적으로 총 3억 2000만부가 팔려 나간 '헤리포터'는 현대인의 자아 실현에 대한 동경을 담은 책이라는 점에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말팔랑이 삐삐'는 여성과 아동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책이라는 점에서 50권의 책에 뽑혔다.

가로지르는 여행이 '모험'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역사를 만든 책들이라고 해서 영원히 통용되는 진리를 간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모든 지식은 일시적이며 반박 가능한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뉴턴도 아인슈타인에게 반박을 당했고, 아인슈타인도 안전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상형과 다른 남자에게 왜 끌릴까

바람 피우고 싶은 뇌 야마모토 다이스케 지음



연애와 사랑에 대한 남녀의 복잡미묘한 차이점을 뇌 과학을 비롯해 생물진화학, 심리학, 사회학을 결합하여 재미있게 설명한 과학 에세이 '바람 피우고 싶은 뇌'가 출간됐다.

이상형과 정반대의 남자에게 끌리는 이유, 아빠와 닮은 사람을 만나는 발들의 심리, 100번 구애해도 안 넘어가는 이유 등 사랑과 연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특히 복잡하게 생각되던 연애와 사랑에 대한 근원적인 차이점-남자들이 글래머를 좋아하는 이유, 여자들이 질투하는 이유 등을 거침없는 표현과 기발한 발상의 실험을,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파헤쳤다.

'바람기'에 대한 설명은 재밌다. 저자는 인간이 한 사람에게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직접하고 하고 다른 과학자의 논문을 인용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고릴라와 침팬지, 인간의 고한 크기와 바람기의 상관관계를 살펴며 "인간의 경우 침팬지와 고릴라의 중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부일처제를 기본으로 하되 가끔 바람을 피우기도 하는 사회에서 살아왔다"고 말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역사 인물들에게 쓴 '19통의 편지'

새로운 세대를... 임지현 지음



학문과 국경의 경계와 틀을 넘어선 트랜스내셔널 역사학자로 꼽히는 임지현 교수가 역사 인물에게 쓴 19통의 도발적인 편지를 한데 묶은 '새로운 세대를 위한 세계사 편지'를 펴냈다.

저자는 박정희와 김일성을 비롯해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 이탈리아 파시스트 독재자인 무솔리니, 쿠바의 혁명가 체 게바라 등 역사 인물에게 보내는 사(私)적인 편지를 통해 자신의 말을 포함한 새로운 세대에 '사(私)적인 말 걸기'를 시도했다.

저자는 "역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얼마와의 팽팽한 신경전에서 헤게모니의 문제를 느껴보고 아빠와 싸울 때 권력과 지배, 순응과 저항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선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교조적 역사 공부를 던져버리고 밀어내려 살아 있는 역사를 추구하라고 제안한다.

특히 한국의 국사 교과서와 한반도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해 줄곧 논란이 돼 온 일본 우파의 '새역사 교과서'와 무척이나 닮은 꼴이라는 주장도 강렬하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마지막 편지인 '한·중·일의 동료 시민들'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대미를 장식한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국가의 경계 속에 가두는 '국가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자신이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의 역사'를 직접 창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휴머니스트·1만7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주민 갈등이 빚어낸 '비극의 씨앗'

마을로 간 한국전쟁 박찬승 지음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6·25 관련 서적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마을'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을 조망한 책이 나왔다.

한양대 사학과 박찬승 교수가 쓴 '마을로 간 한국전쟁'은 마을에서 벌어진 상호 학살 사건의 과정과 원인을 치밀하게 분석, 한국전쟁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10년간 마을 현장을 찾아 관련자들의 구술을 채록하고 가문의 족보까지 꼼꼼히 조사한 저자는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시야를 한반도 마을 공동체로 좁히고 주민들 간의 신분, 이념, 종교, 토지 소유 등의 갈등이 어떻게 비극을 잉태했는지 보여준다.

책에는 모두 5개 마을의 사례가 등장한다. 5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진도 현풍 과목 동족마을은 한국전쟁이 시작되자 우익과 좌익으로 갈라지면서 서로 '보복'을 한다. 그 결과 인민군과 좌익측에 의해 희생된 110명, 입산한 37명, 경찰과 우익에 의한 희생자 20명 등 모두 167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또 양반 마을과 평민마을이 충돌했던 부여군의 두 동족마을, 땅과 종교를 둘러싼 충돌에서 시작된 당진군 함덕면 사람들, 두 명문 양반가가 충돌했던 금산면 부리면의 비극도 다루고 있다.

둘레게·1만7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인생열쇠 062-383-8982. 큰 꿈을 가지고 많은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도 원하는 바를 성취 못하시고 알 수 없는 장애가 생기는 분. 현실의 장애를 이겨내고 이루고자 하는 꿈을 실현하고 싶은 분. 소원성취의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대인동업부동산.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토지매매, 건물매매. 위치, 면적(평), 용도, 평당금액. 상무지구 1,652㎡ (500) 상업 1,100만원.

믿음 공인중개사 T. 971-4911 H.011-627-0876. (첨단 세종문고 건너 쌍둥이 빌딩 1층). ■첨단지구 상가 임대: 60m 대로변 2.3층 450평(분할가능).

부동산 거래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